

海 東 名 迹 2 冊

任 昌 淳

(泰東古典研究所長)

一. 序 言

本書는 우리 나라의 古法帖이다. 옛 글씨를 감상하는 데는 眞蹟을 첫째로 남음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年代가 오래될수록 眞蹟은 차츰 없어지게 마련인데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遺物은 소중히 여기지 못한 곳은 더욱 그렇다. 오늘 날 高麗以前에 된 名筆의 眞蹟은 거의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간혹 金泥로 쓴 佛經類가 나오면 이를 곧 金生의 글씨라고 하나 金生의 글씨로 인정될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진적을 얻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模本이다. 眞蹟이나 模本을 나무 또는 돌에 새겨서 그 墨拓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장정한 것을 法帖이라 한다. 中國에서는 일찍 宋太宗이 淳化3年(992)에 宮中에 비장된 古今의 名蹟數千卷中에서 뽑아서 法帖을 摹刻한바 이것이 유명한 淳化閣帖 10卷이다. 이 法帖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오늘 날에도 魏晉은 물론 南北朝時代의 諸名家의 名蹟을 감상하며 書藝를 역사적으로 考究하게 되었다. 뒤에 明代에 이르러서는 停雲館, 餘清齋, 東書堂, 眞賞齋, 墨池堂, 戲鴻堂, 快雪堂 등 여러 法帖이 石刻되어 이 방면에 풍부한 자료를 남겨주고 있다. 그리하여 法帖을 專門으로 연구하는 多數의 學者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書藝史를 보면 그 作家에 있어서 벌써 中國南北朝時代인 三國時代에 된 石碑에 쓰여진 우수한 名蹟이 많았고 統一新羅以後에는 金生, 靈業, 崔致遠 등 많은 名家가 있으며 高麗一代에 있어서도 결코 中國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全盛期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을 연구할 자료로서는 現存 石碑以外에 다른 資料를 거의 발견할 수 없을만치 泯滅되었다. 이러한 상태하에 이번 에 月城郡에서 晦齋 李彥迪 先生의 手澤本으로 추정되는 法帖 海東名迹 2冊을 발견하게 됨은 斯學研究의 資料를 얻게된 것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二. 本書의 內容

本書는 月城郡 安唐邑 玉山洞, 李彥迪 先生의 宗孫인 李元陸氏가 所有한 先生의 거처하던 곳인 獨樂堂 藏書閣에 간수되어 있다. 帖裝本 上下 二冊, 크기 세로

37.2cm, 가로 2.50cm이며, 墨拓本인데 탁본된 자축을 보아 原板은 木板이 아니요, 石刻인 것임을 알 수 있다. 刊記가 없으므로 年代는 알 수 없으나 印금의 筆蹟이 成宗까지 들어있고 一般은 河演, 申樞까지 있음을 보아 이것이 中宗年代에 된 것임을 推定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먼저 前集에는 文宗, 成宗의 글씨를 위에 실었고 다음에 新羅人으로 崔致遠, 金生, 靈業 등 세 사람을 실었는데 崔致遠의 遺蹟으로 확실한 것은 현재 雙溪寺에 있는 眞鑑禪師碑뿐이어서 이는 일찍 木刻 또는 石版印刷까지 보급되어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나 다른 것은 별로 볼 수가 없었는데 本書에서는 그의 自筆 詩稿이외에 數種이 들어 있다. 金生의 글씨도 奉化太子寺의 白月栖雲塔碑以外에 大東金石書에 傳刻된 文章不完의 一片이 있을 뿐인데 本書에는 章唐書詩 絕句의 雄健한 筆蹟이 있는 외에 田遊岩序, 佛經의 寫本 등 多樣한 眞蹟을 集刻하여 이것으로 부족하나마 金生의 全貌를 살필 수 있게 하였다. 靈業은 현재는 없어진 斷俗寺 神行禪師碑만이 남아 있어 書聖 王羲之의 聖敎序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本書에서는 그 碑가 아닌 다른 墨蹟을 模刻하여 진기한 자료를 남겨주고 있다. 高麗時代의 筆家로는 坦然, 李嵩, 申德鄰 三人의 글씨를 실었다. 坦然은 고려말대의 第一人者로 그 글씨는 역시 王羲之의 風을 따랐으나 자기대로의 개성을 살리어 寫經體에서 풍기는 六朝의 운치를 加味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그 遺蹟은 가장 확실한 것이 淸平寺文殊院記인데 그 碑조차 破壞되어 몇 조각의 斷片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本書에 수록된 것은 또한 그의 墨蹟에서 직접 모자란 귀중한 것을 전한다. 後集에는 李岡, 僧慧勤, 成石璘, 朴礎, 權近, 李詹, 鄭道傳, 鄭摠, 閔子復, 河演, 申樞, 無名氏 등 12人的 글씨를 실었다. 이들 중에는 현재 筆家로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들어 있다.

이상이 本書의 內容의 전부인데, 그 量으로 보아 그다지 풍부한 것이 아니요, 收錄된 人員數도 많지 않으며 이름이 높은 高麗時代의 많은 筆家들이 대부분 빠져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런 문헌도 남아있지 않은 오늘 날 이것이라도 保存되어온 것은 큰

다행이라 하겠다.

三. 本書의 考證

本書와 같은 名稱인 申公濟의 傳찬이 있다는 기록이 魚叔權의 稗官雜記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近代에 判書인 申公濟가 우리 나라의 名人의 筆蹟을 모아서 刊行했는데 崔致遠 以下 여러 사람이 들어 있다. 嘉靖丁亥(中宗 22年—1527)에 내가 愼自慥씨에게 갔더니 愼公은 「海東名蹟가운데에 朴耕의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은 곧 내가 쓴 것인데 申公이 朴耕의 子弟에게서 이 글씨를 보고 그것을 松耕의 글씨로 잘못 알고 실었다. 申公이 그 책을 편집한 것은 朴公이 죽은지 10여년 밖에 안되는데 申公은 鑑識眼이 높다는 분인데도 이런 실수가 있으니 百年이상 된 것이야 어떻게 그 眞假가 혼동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으로 본다면 申公濟가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申公濟는 字를 希仁, 號를 伊溪라 하는데 곧 申樞의 曾孫이요 申叔舟의 아우인 歸來亭末舟의 아들이다. 1469년에 出生하여 文科에 급제하고 벼슬이 判書에까지 이른 분으로 글씨를 잘 써서 현재 安攄墓碑와 尹孝孫墓碑를 쓴 것이 전한다. 魚叔權의 기록으로 본다면 그 年代로나 또는 崔致遠 以下 若干人의 書蹟을 모았다는 記事로 보아 本帖과 同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다만 그 記事에서 말한 朴耕의 글씨가 獨樂堂本에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吳世昌氏의 檣城書畫徵에도 海東名蹟을 引用한바 그 중에는 本書에는 보이지 않는 洪應, 姜希顔, 安止, 朴瑛, 趙末生 등의 글씨가 海東名迹에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리어 本書에 실린 李岡, 申德鄰, 鄭道傳, 權近 등의 項에서는 「海東名蹟」에 들어 있음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吳氏가 引用한 海東名迹은 本書와는 異本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申公濟가 편찬한 것은 本書와 同一한 것인데 朴耕의 書는 叙上의 문제로 뒤에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현재 吳氏가 引用한 책을 볼 수가 없으며 또한 奎章閣藏書中에 同一한 명칭의 書籍이 있는데 그것은 木板本 1册 30張으로 된 것이어서 本書와는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四. 本書의 價値

우리 나라의 帖本으로는 일찍 安平大君이 中國의 名跡을 模刻한 匪懈堂書帖이 있다. 院堂集에는 該書에

우리 나라의 글씨도 들어있는 듯 한데, 내가 가진 것은 중국 사람의 것 뿐인즉 그것도 異本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현재 昌德宮에 보존되고 있는 中國古帖本の 摹刻本인 王羲之의 草書帖을 위시하여 草訣百韻歌, 華陳圖, 黃庭經, 遺教經 등의 石刻原石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가 王의 原蹟이 아닌 後人の 僞作인데 이것을 우리 나라 사람들은 眞蹟인줄 그대로 臨書하여 배웠기 때문에 글씨의 質을 低下시킨 것은 또한 帖學에서 일어난 결함이라 할 수 있다. 昌德宮本으로는 趙孟頫의 七月篇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말기 이래 우리가 松雪體를 주로 썼던 證左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것으로는 太祖以下 역대 임금들의 御筆을 모각한 「列聖御筆」이 있다. 그 가치야 어쨌든 原石을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점은 資料面에서 매우 귀중하다 할 것이다.

이밖에 木刻帖本으로 李志定이 集刻한 大東書法이상당히 많은 量의 名蹟을 모았으나 古刻에서 다시 複刻한 것이 많아 그 眞蹟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 많다.

위에 高宗 때에 朴文會라는 분이 集刻한 古今歷代法帖은 內容도 거칠고 板刻도 정하지 못하며 日政中 翰南書枝에서 出版한 海東名家筆譜는 歷代法帖보다도 더 격이 떨어진다.

이상에 나열한 것이 우리 나라의 法帖의 대략이다 中國의 歷代法帖에 비하면 質에서는 말할 것 없거니와 量에 있어서도 貧弱함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다행히 가장 最古本인 本書가 아직까지 傳存하여 현재에 그 遺蹟을 볼 수 없는 여러 名人들의 書蹟을 보여 줄 뿐 아니라 그 精確한 石刻이 거의 原蹟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 것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의 자랑거리며 書藝研究史上 가장 진귀한 文獻이다.

結 語

本書의 內容을 소개하며 帖學에 대한 것을 대략 서술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淸朝에 들어와서 考證學이 발달한 뒤에는 차츰 法帖의 가치가 輕해지고 碑學이 盛하여 院元과 같이 「北碑南帖論」을 주장한 학자도 있게 되었다. 더구나 우리와 같이 法帖이 빈약한 경우에서는 法帖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어서 書藝史를 연구함에는 現存한 金石을 第一의 資料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 방면의 資料蒐集과 研究가 계속 盛行해야만 될 것이다.